

제6편

시 장

제6편 시장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저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한데 섞여 시끌벅적한 생활의 소리와 모습을 연출하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 특히 5일장이 유일한 장이던 시절에 장은 삶의 활력을 주는 곳이었다. 시장은 단순히 물건이 거래되는 곳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교장·오락장·정보교류의 장이기도 했다. 장에 나오면 다른 마을 사는 친·인척도 만나고 산대놀음 같은 볼거리도 즐기고, 사람들끼리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하는 곳들이 따로 생겨나면서 시장은 지금처럼 단지 물건만을 사고 파는 장소로 기능이 줄어들었다.

현 시흥시 지역에 있었던 5일장 가운데 신천동과 대야동을 중심으로 한 사천장(뱀내우시장), 삼거리시장, 안산시장, 도일시장 등이 제법 규모가 컸던 장시이다. 5일마다 셨던 재래 시장인 5일장은 상설시장과 점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었다. 1980년대에 신천지구에 택지가 조성되고 삼미시장이 개설되었고 1990년대에는 정왕동에 대단위 주거지가 조성되어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 새로운 상권을 형성



시장 시장

하고 있다. 사천장, 삼거리장, 안산장은 비교적 변화한 지역에 섰던 것이어서 이를 대신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없어졌지만, 도일장은 지금도 장이 선다.

이 편에서는 시흥의 유통공간을 소개하였다. 시흥에는 5일장인 도일시장, 매일시장인 삼미시장, 현대식 상점이 모두 있다. 도일시장에는 노인들이 많이 보이고 젊은 주부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현대식 대형 유통점이 들어섰다. 유동인구가 많은 신천동 변화가에는 삼미시장이 매일 열린다. 저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이 벌어진다. 여기에 거리마다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가게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옛 사진 속의 가게들은 기와를 얹은 단층의 허름한 건물에 볼품없이 크기만한 간판들을 내걸었다. 진열대도 없는 가게들은 살림집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진관, 정육점, 식당 등의 모습이 한말의 점포 사진과 비교해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현대의 가게들은 그 가게의 특성을 살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끌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하며 건물 자체도 개성이 강하다.

밤이면 화려한 네온사인이 가게를 환히 밝힌다. 그래서 옛날 가게들은 소박해 보인다.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풍경이 흥정이다. 본문에서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의 흥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입심 좋은 장사꾼은 이런저런 말로 사람들을 불러모은다. 한줌씩 덤으로 더 주기도 하는 인정은 장터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정신없고 무질서해 보여도 시장에는 질서가 있다. 장날만 벌어지는 전들이나 집에서 준비한 것들을 들고 나와 앉아 있는 할머니들에게는 자리의 질서가 있어서 함부로 남의 자리에 물건을 펴놓지 않는다. 몇십 년씩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많다.

장날에 대한 추억이 있다. 장보러 가신 부모님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 사람들은 지금도 장에 가면 삶의 활기가 느껴진다고들 한다. 장이란 곳은 그런 곳이다. 아무리 깨끗하고 잘 정돈된 백화점이 있어도 사람들은 장에 대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어서 여전히 장이 서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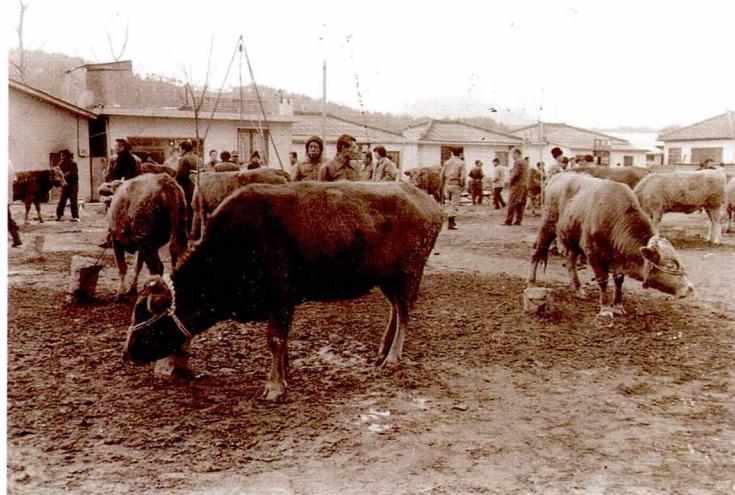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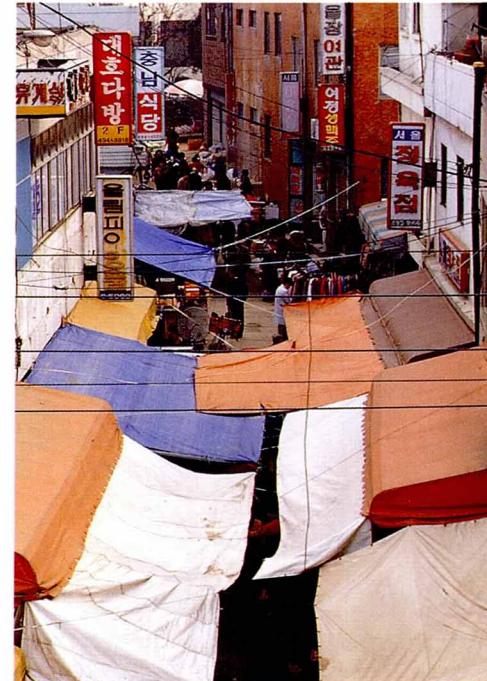


1970년대 어느 장날의 도일시장 풍경(거모동, 1975)

시흥시의 시장은 일찍이 신천동과 대야동을 중심으로 한 뱜내우시장과, 수암지역의 수암시장(또는 안산시장, 읍내장), 군자지역의 도일시장으로 정립되어 왔으나 급속한 도시화로 뱜내시장은 1970년대에, 수암시장은 1960년대에 이르러 자취를 감추었고, 현재는 도일시장이 그 맥을 잇고 있다. 그뒤 1980년대에 신천지구에 새로운 택지가 조성되자 신천동에 삼미시장이 개설되었고, 1990년대에는 정왕동에 대단위 주거지가 조성되자 대형 매장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뱀내우시장(대야동, 1971)



장옥이 따로 없는 장터에는 장날이면 천막이 쳐진다(거모동. 도일시장, 1997)



장터 골목(거모동. 도일시장, 1997)



야채전(거모동. 도일시장, 1997)



집에서 장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온 할머니들. 옹기종기 모여 앉은 것 같지만 자리마다 암묵적으로 임자가 정해져 있다(거모동. 도일시장, 1998)



상인이 가게에서 책을 보면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장사가 잘 안돼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함인지 한 상인이 신문을 보고 있다(거모동. 도일시장, 1998)



플라스틱 그릇이 수북이 쌓인 그릇전(신천동. 삼미시장, 2000)



요즘은 장터에 전을 펴지 않고 물건을 진열한 트럭을 도로변에 세운 채 장사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거모동. 도일시장, 1998)



자리를 깔고 옷들을 죽 벌려 놓은 옷전. 전통적인 5일장 전의 형태다(거모동. 도일시장,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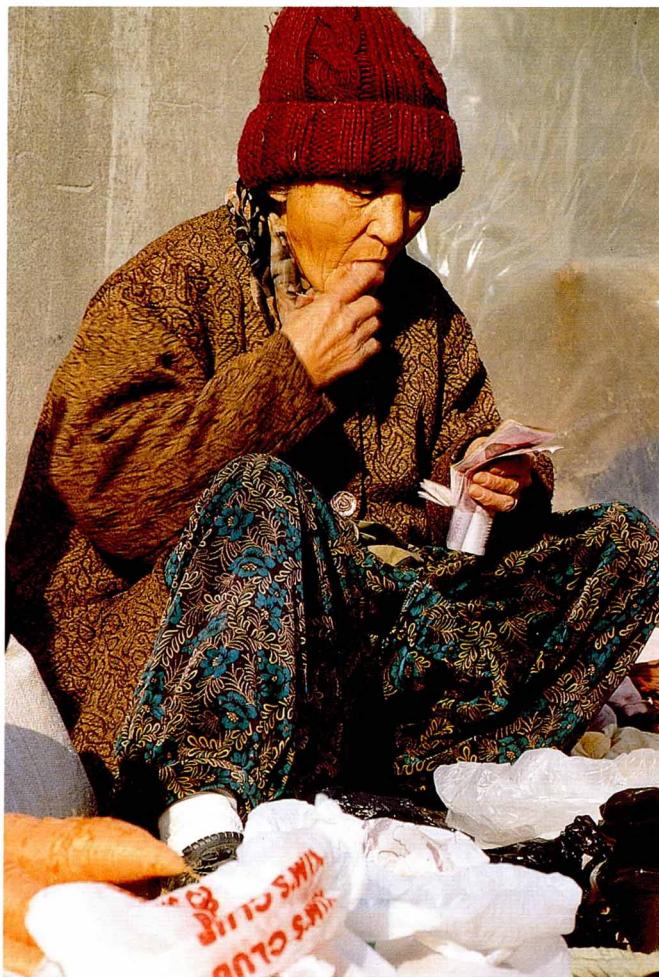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벌로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거모동. 도일시장, 1997)



특수의상을 제작해 입은 젊갈 장수(거모동. 도일시장, 1998)



김장용 비닐을 걸고 다니며 파는 할아버지. 김장철 한철 장사다(거모동. 도일시장, 1998)



꼬깃꼬깃하게 접어 둔 지폐를 모아 하루 장사를 결산하고 있다(거모동. 도일시장, 1996)



한 줌의 덤은 장터의 인지상정이다(거모동. 도일시장, 1998)



인심 좋은 장사꾼의 전에는 지나가던 사람들도 한번씩 들러본다(거모동. 도일시장, 1998)



장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먹거리이다(거모동. 도일시장,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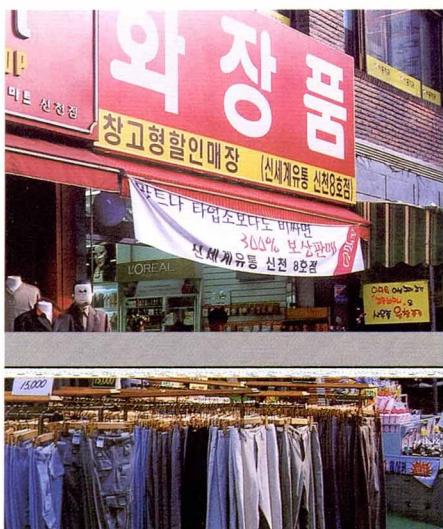
뻥튀기 장수(신천동. 삼미시장, 2000)



장을 보러 왔다 돌아가는 사람들은 으레 짐이 많기 마련이다(거모동. 도일시장, 1998)



족발 한 접시에 소주 한 잔. 장에 나온 할아버지들에겐 가장 큰 즐거움이다(거모동. 도일시장, 1998)



요즘의 회장품 가게는 대부분 할인점이고 사은품도 준다(신천동. 삼미시장, 2000)



어물전(신천동. 삼미시장, 2000)



젓갈 장수(월곶동 월곶포구,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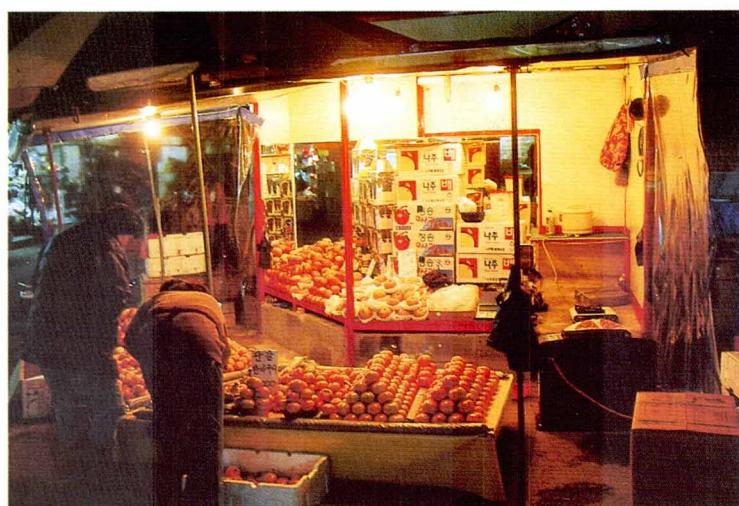
삼미시장 골목(신천동. 삼미시장, 1998)



해질 무렵의 시장. 전등이 켜지고 저녁 준비를 위해 나온 주부들로 붐빈다(신천동 삼미시장, 1998)



시장 안의 간이음식점. 포장마차에 문과 간이벽을 달아 놓은 형태이다(신천동 삼미시장, 1998)



과일가게(거모동. 도일시장, 1998)



떡볶이, 어묵, 순대 등의 군것질거리로 활기찬 포장마차(신천동 삼미시장, 2000)



월곶수산시장의 상가들(월곶동 월곶포구,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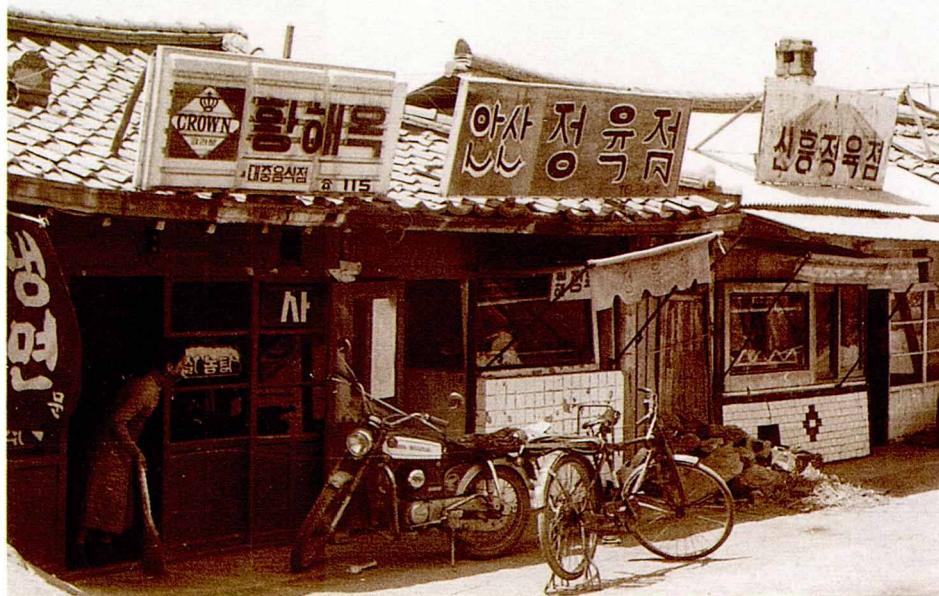
월곶수산시장안의 상가①



월곶수산시장안의 상가②

상점(商店)

시흥의 초창기 상점은 민가의 한 부분을 개조하여 개점을 하였다. 그뒤 1970년대초(소래농협은 1970년에 개점)에 단위농협에서 구판장(연쇄점→하나로마트)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어 1970년대 새마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마을에서는 구판장이 개설되었다. 1990년대 이후 정왕동·대야동 등지에 대형매장에서 순회버스가 운영되어 종전의 상점은 어느 새 뒷전으로 밀리거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정육점과 음식점이 나란히 붙어 있다(거모동, 1970년대)



사진을 내걸은 쇼윈도는 지금과 같지만 '카메라 대여함'이라는 팻말이 격세지감을 보여주는 사진관(거모동, 1970년대)



언제나 고소한 냄새를 풍기던 기름집(거모동, 1970년대)



오토바이가 자가용처럼 이용되던 시절의 오토바이센터. 판매점이 아니라 수리점이다(거모동, 1970년대)



잡디한 생활용품들을 팔던 만물상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추억의 가게다(거모동, 1970년대)



마을공동구판장 내부(포동, 1980년대)



대형 수퍼마켓이나 할인점은 쇼핑의 편리함 때문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정왕동, 1998)



대형 유통점에 밀려 동네의 소형 수퍼마켓은 구멍가게가 되어버렸다(은행동, 1998)



예쁜 상품들이 즐비한 팬시점(신천동, 1998)



대형 유통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직접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도우미다(정왕동, 1998)